

바위산 머리를 에둘러 질게 물들이고, 산그늘 위로 솟아오른 봉우리들은 창공의 쪽빛을 뒤로하고 금빛과 보랏빛을 내비치곤 한다.

나는 광활한 전망과 깊은 고독을 아울러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을 즐기 찾곤 했다. 어느 날, 오두막 말치에 앉아 폐허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중, 벌써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. 그는 옛 원주민들의 관습에 따라 작은 옷속에 긴 속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, 맨발에 흑단목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다.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, 관상은 고상하면서도 소박했다. 나는 그를 정중하게 맞았다. 그는 내 인사에 답례하고서는, 잠시 나를 주시하더니 내게 다가왔고, 이내 내가 앉아 있던 둔덕으로 올라와 휴식을 취했다. 이런 신망의 표시에 들뜬 나머지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.

“어르신,”

내가 말했다.

“이 오두막 두 채가 누구네 집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”

그가 대답했다.

“이보게 젊은이, 이런 오막살이에도, 이런 황무지에도 사람이 살았었지, 이십여 년 전에는 말이야, 여기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두 가족이 있었다네. 그네들 사연은 눈물겹지만, 인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이런 섬에서 어느 유럽